가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하는 것이다

(빌4:10~23)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가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하는 것이다'
이 제목이 뜻하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 '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풍부함은 추구하여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부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
가난도 피하거나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3년 4월에 서울 노원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동안 정치권 바깥에 있던 안철수 씨가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놓으니 여당이고 야당이고 난리가 났어요.
여권과 야권에서 안철수 씨에 대한 공세가 빗발치게 됩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안철수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최종병기 활>의 마지막 부분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즉, 여야의 공세가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아니, 여당은

왜 있지도 않은 일로 날 공격하지?'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그 목표지점을 향해 이런 것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극복한다는 거죠, 바람을 극복한다.
계산한다는 것은, 바람이 느껴지면서 그 바람의 크기에 압도되어, '아, 이 정도로 큰 바람이라면 활을 내가 제대로 쏴서 목표물에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바람에 압도되는 상태를 바람을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목표물을 맞히고 싶습니다.
그때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가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도 생각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 당장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니까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두려워지고 앞날에 걱정이 생기고…
그런데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그 가난을 불편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피하거나 가난을 극복하려 하지 말라, 가난이 주어질 때는 가난에 처할 줄 알아라.
처할 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편을 느끼거나 가난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가난 속에 머무는 겁니다.
풍부함도 마찬가지에요.
풍부함이 주어지면 대부분이 풍부함에 마음이 말려들어갑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일에 마음대로 쓰면서 그 풍부함에 마음이 말려들어가고, 풍부함을 믿고 안심하게 돼요.
그렇게 풍부함에 말려들지 말고 풍부함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불편이 느껴지고 두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니구나! 이 가난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가난도 풍부함도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은 피해야 할 과제로, 풍부함은 취하고 얻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난과 풍부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면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이 풍부를 주시면 풍부에 휘말리지 말고 처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풍부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가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가난 속에 처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조금 물을 더디 주시면 갈증 난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과 풍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너무 유명합니다만,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 아닙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과 마치 한 쌍이 된듯해서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이 속해있는 전후맥락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교후원금을 보내고,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에 뒷바라지를 하도록 파송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의 뜻으로 표현하면서 이 서신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은 빌립보교인들이 전해준 선교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게 개인적으로 쓰게 되는 선교후원금이에요.
이 후원금 얘기를 빌립보교인들과만 합니다.
선교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교회와 헌금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보내지 않고 있는 교회와 얘기를 하면서 선교후원금을 좀 보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보내는 사람들과 선교후원금 얘기를 하면서 가난과 풍부에 대한 이야기가 곁들여져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편지에서도 물론 선교후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반대에요, 앞으로도 절대 선교후원금을 안 받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교인들에게는 사도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돈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직책의 중요함과 직책의 타당함이 돈이 들어가는 곳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진짜 사도라면 돈을 받았을 것인데, 자기가 양심적으로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안 받는 것 아니냐?’
모든 직책의 정당함이 돈으로 다 계산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았다가는 복음도 돈으로 사는 걸로 알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선생들을 초청해서 돈 주고 그 강의를 듣는 것이 돈 많은 도시 고린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돈을 받을 경우에, 복음도 돈으로 사는 것으로 알게 될까봐, 거기선 아예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할 뿐, 그러나 빌립보교회에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교회가 창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게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 2년여 동안 거기 머물게 되고 로마로 후송하는 동안에, 사도바울의 타임스케줄을 알 수 없어서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도바울이 로마에 와서 전도활동을 하다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재개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싹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식으로는 참 낯 뜨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교헌금을 나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 참 나한테 돈 보내라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신앙인의 인지상정이라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마땅히 맺혀져야 될 열매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들이시는 제사다.
뭐 이건 돈 내라는 말을 따따블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비난하는 부흥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바른 믿음이 있다면 나한테 선교후원금을 보내는 열매가 맺혀졌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데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라고 할 때 이 유익함이라는 단

어들이 다 상업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너희가 나한테 선교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가난함 가운데서 모아지는 그 헌금을 더욱 더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
즉, 가난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풍부함에도 그 풍부함에 마음이 말려들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토아철학에서 쓰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스토아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은 금욕을 기반으로 하는, 육체적으로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걸 금욕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처럼 금욕을 기반으로 한 마음의 평정상태를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동양종교에서 말하는 수양이나 명상, 참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상태, 이런 자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속을 아예 떠나 나물 먹고 물마시면서 유유자적하는 이런 류의 자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이 모든 자족과 다른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족은 세계 내에 폐쇄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족이라고 하면, 사도바울의 자족은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들어놓으신 그리스도만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하늘과 통하게 됨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자족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걸 자족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오직 이 세상 밖의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누구의 도움이나 어떠한 이 세상 속의 가치들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니 자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이라는 상황이 주어져서 그 가난이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자족한 겁니다.
만족하면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난에 처할 줄 알게 되는 비결이지요, 가난이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없어서 좋은 옷 못 사는 것 상관없어요, 돈 없어서 명품백 하나 못 사는 것 아무 상관없어

요.
그러나 명품백을 사야만 될 것 같다면 이건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풍부함에도 돈을 씀으로써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하늘로 자족한 겁니다.
자족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법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능력을 받았으면 가난을 극복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풍부함을 유지하고 풍부함을 더 증가시켜나가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근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난의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풍부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해도 부자로 살아도 부자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자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풍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한숨 돌리겠는데, 숨을 쉴 수가 없도록 가난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이때 많은 경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내 처지를 알고계시는 게 틀림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숨을 못 쉬게끔 내게 가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처지를 알고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어려운 환란을 주실 수가 있을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넘어간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를 때.
출애굽 할 때 기적을 봤어요,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도 지금 당장 가난이 몰아치고 어려움과 환란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 속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다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또, 풍부를 주면 풍부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풍부함에 말려들어 가버려요.
여기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의심을 뛰어넘게 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난 때문에 불편해하면서 그 불편한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함을 쟁취하는 게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진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 돈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좌우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돈을 이기는 신앙이지 돈을 버는 신앙이 아닙니다.
돈을 이기려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만족하며 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에요.
우린 돈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게 된 능력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카타콤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낳으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도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난은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난이 주어졌을 때, '아이구, 이거 기회가 왔구나!' 어떤 기횝니까?
내가 한번 돈이라는 걸 이겨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돈이 없는 가운데 기쁨을 한번 찾아봐야지, 돈이 없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까짓 돈 주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로 돈 주면 돈 때문에 망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돈을 이기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번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돈을 이겨보는 기회를 가지라는 얘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게 되는 이 능력.
자족하게 되면 가난도 상관없고 부함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뿐이지요.

풍부에도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부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된장녀라고 하지요, 된장을 처바르는 것처럼 명품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처바르고 다녀야 마음이 편한 상태, 돈이 있어도 이런 된장녀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꼭 티내면서 외제차 사야 되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꼭 티내면서 날마다 미장원 가서 고급 머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명품을 사야 되는 겁니까?
돈이 있어도 좀 없는 것처럼, 돈이 없어도 얼굴을 보면 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가난보다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풍부보다 먼저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가난에 대해서도 죽고 풍부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주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들어놓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자족하게 되지요.
이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가난을 마주하고 내게 주어진 풍부를 마주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가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가난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한번 가난을 이겨보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풍부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쓰실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돈에 말려드는가, 아니면 돈을 만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를.
한번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시도해보고, 여생을 이렇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못 느끼고 처할 줄 아는 것임을 신앙인들은 기억하게 해주시며, 풍부함도 내가 추구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풍부함에 말려들지 않고 처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가나안복지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